



조선시대 흥어장수 문순득 표류 국가 상생 프로젝트 펼쳐진다

극단 갯돌, 오늘~12일 목포·신안 우이도 일대
오키나와 손다청년회·필리핀 민속무용단 초청
문순득 생가 답사·워크숍·세미나·초청공연 등

1801년 12월, 신안 우이도에 살던 흥어 장수 문순득은 흥어를 사러 흑산도로 출항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태풍을 만난다. 표류하던 배는 유구국(류큐·현 일본 오키나와)에 당도했고 문순득은 약 8개월간 언어·문화를 배운 뒤 중국을 거쳐 조선으로 돌아오는 배를 탄다. 하지만 또다시 풍랑을 만나며 더 남쪽인 여승(현 필리핀)까지 떠내려가고 광둥성 오펜(현 마카오), 난징, 베이징을 거쳐 1805년 1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온다.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관하고 극단 갯돌이 주최하는 ‘문순득 표류국가 상생 프로젝트’가 8일부터 12일까지 목포와 신안 우이도 일대에서 펼쳐진다. 전남문화관광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200여 년 전 흥어장수 문순득이 표류했던 나라들과 교류해 동아시아 평화연대를 모색해보는 글로벌 프로젝트이다.

지난해 교류했던 오키나와 손다청년회를 비롯해 올해는 문순득이 11개월 동안 머물렀던 필리핀 루손섬 비간시 필리핀 북부대학(UNP) 민속무용단을 초청한다.

UNP무용단은 일로카노 민속문화와 비간 스페인 유산, 모던 재즈, 힙합, 댄스 스포츠, 라틴 등을 아우르는 무용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필리핀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에 초청받고 있으며 전국 대회에서 다수 수상한 실력있는 단체다.

프로젝트는 문순득 생가답사, 워크숍·세미나, 표류국가 초청공연, 국제 교류식, 역사문화답사 등으로 구성된다.

9일 진행되는 신안군 우이도 생가답사



에서는 길놀이, 마당씻이, 3개국 춤 공연, 제의(祭儀)를 열어 문순득을 기린다. 10일 오전 10시 워크숍(목포 남포소극장)에서는 UNP무용단이 필리핀 민속무용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오후 5시(목포 KBS 공개홀)부터는 3개국 공연팀이 무대에 올라 문순득 마당극, 사미센 연주, 민속 공연을 펼친다.

마지막 11일 오전 10시부터는 목포 근대역사관·김대중 노벨평화상기념관 역사문화답사, 국제세미나(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세미나실)가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오브레로(Obrero) UNP 교수가 ‘비간의 역사와 해양문화’에 대해, 토모치(Tomochi) 오키나와 국제대 교수가 ‘류큐의 역사와 아시아평화연대를 위한 제안’에 대해 발표한다. 또 메도루마(Medoruma) 오키나와 필리핀 연사는 ‘필리핀과 오키나와의 국제관계’, 이운선 목포대 교수는 ‘동아시아 평화와 남북문화 비교연구’에 대



극단 갯돌 ‘문순득 마당극’ 공연



필리핀 북부대학(UNP) 민속무용단

해 이야기한다.

마당아트진흥회는 앞으로 마카오·중국 팀도 참여시켜 프로젝트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5개 지역 대표팀이 우이도에서 머물며 문순득 공연을 공동으로 만들어, 각 나라 장면에는 현지인이 무대에 오르는 연합무대도 구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모집한 서포터즈(25명)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는 온라인 홍보 뿐 아니라 함께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역할을 한다. 장

기적으로는 각 지역에서도 서포터즈를 모집해 ‘문순득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등 아시아 평화활동이 최종 목표다.

손재오 총감독은 “문순득은 예술, 관광, 평화활동을 아우를 수 있는 원소스 멀티유즈(하나의 소재를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하는 것) 콘텐츠다”며 “200년 전 역경에 굴하지 않았던 문순득 정신은 21세기 동아시아가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세미나 무료. 문의 061-243-9786.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소쇄원 미디어아트’

진시영 작가·무용수·연주자 ‘파노라마식 미디어 오페라’

10일 풍류정원 달빛공연

담양 소쇄원이 미디어아트 옷으로 갈아입는다. 광주문화재단이 10일 오후 6시 소쇄원에서 ‘소쇄원의 소리풍경’을 주제로 올해 마지막 풍류정원 달빛공연을 연다.

소쇄원에서 처음으로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하서 김인후 선생의 ‘소쇄원 48영’을 미디어아트, 음악, 춤으로 재해석한다. 진시영 작가가 총연출을 맡아 만개한 복사꽃빛과 눈덮인 광광각 등 소쇄원을 둘러싼 자연을 미디어파사드로 그려낸다. 국내 최고 무용수와 연주자들이 함께하는 수준 높은 라이브 사운드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는 ‘파노라마식 미디어 오페라’다.

국립무용단 수석무용수 장운나씨를 비롯해 이아람(대금), 황민왕(아쟁·타악), 피아니스트 이상록 등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참여한다.

공연은 총 다섯 장으로 구성된다. 1장 ‘광풍각의 미인’에서는 장운나씨가 자연소리에 몸을 맡기는 듯한 춤사위

를 펼친다. 2장 ‘대나무 숲 세레나데’는 인근 대나무 숲에서 이아람 연주자가 마치 사람의 세레나데처럼 대금연주를 한다.

3장 ‘다리 위 울림소리’에서는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투영된 수목화 영상 위에 그림을 덧그리는 퍼포먼스를 펼친다.

4장 ‘계곡풍류’에서는 이상록씨가 피아노 현을 두드리고 굽으며 계곡 물소리, 빗소리 등을 표현하고 5장 ‘눈덮인 소쇄원’에서는 연주자들이 모두 광광각 주변으로 모여 라이브 사운드 퍼포먼스를 펼친다.

모든 장에서는 극단 신명 단원들이 옛 복장을 입고 과거 모습을 재현하는 연기를 볼 수 있다.

진시영 작가는 “소쇄원은 모든 예술가가 탐낼만한 공간이다”며 “음악과 영상이 어우러지며 한 편의 오페라를 감상하는 듯 깊은 잔향을 남기는 공연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문의 062-670-5744~5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한강 ‘채식주의자’ 영어 번역 스미스 ‘한국문학번역상’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옮긴 데버러 스미스(29·사진) 등 4명이 제14회 한국문학번역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한국문학번역원이 최근 밝혔다.

데버러 스미스는 ‘채식주의자’ 번역으로 소설가 한강과 함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한 영국인 번역가다. 아시아·아프리카 문학에 특화된 비영리 출판사 ‘틸티드 악시스’를 통해 한국 문학 작품을 해외에 여러 편 소개했다.

독일어권 수상자로는 정유정 소설 ‘7년의 밤’을 번역한 조경애 씨, 일본어권에서



는 이승우 소설 ‘미국에 대한 추측’을 옮긴 김순희 씨가 각각 선정됐다.

번역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외국 현지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14개 언어권 89종을 대상으로 원작의 이해도, 번역의 충실성 및 완성도뿐 아니라 현지 언론 서평 등을 검토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8일 오후 7시 한국문학번역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2016 베스트셀러 1위

온라인서점 알라딘

온라인서점 알라딘은 올해 1~11월 도서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연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고 7일 밝혔다.

2007년 출간된 ‘채식주의자’는 지난 5월 한국 작품으로는 처음 세계적 권위의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수상작으로 선정되면서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알라딘에서는 수상 소식이 알려진 5월 17일 오전 9~11시에 1분당 평균 7권씩 팔

려나가기도 했다.

‘채식주의자’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윤동주의 ‘초판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였다. 기시미 이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헤인스님의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포터 스타일의 ‘5년 후 나에게’는 차례로 3~5위를 차지했다.

이어 6~10위에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 ‘사피엔스’, ‘초판본 진달래꽃’,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전남대 내일 ‘BK21플러스 지역어 사업단’ 양단 교수 강의

전남대 ‘BK21플러스 지역어 기반 사업단’(단장 신해진·국문과 교수)이 오는 9일(오후 2시) 인문대학 학술회의실(인문대 1호관 113호)에서 해외 석학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중국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 초청 강사는 중국 북경대학의 왕단(王丹·사진) 교수다. 왕단 교수는 이날 중국에서의 한국학 교육 및 연구의 전개 과정과 현황을 시기적으로 세분화해 살펴보고, 한국학 교육·연구의 발전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왕단 교수는 북경대학교 한국어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원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북경대학교 한국(조선)언어문화학부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문의 062-530-0230. /박성천기자 skypark@

상가 매매 6층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50평 (6층) 천변로 전방 최고 !!! 즉시입주 / 주차완비 / 난방완비 인테리어 최고급 완비(5천만 투자) ★ 차 세 1억6천만 매 가 1억1천만 ※(임대 가능 보2천 월 60만) (용 5천) 북구 중흥동 커피숍 임대(1층) 전대정문 2분 후문 2분 시설 완비 / 즉시 입주가능 ▶ 보 2천 월 70만 첨단 사무실 임대 (1층~7층) ① 보 1,000만 월 40만 (투룸형) (주차 1대 가능) (전세 7천 월 5만) (전용 12평, 분양평수 16평) ② 보 500만 월 35만 (투룸형) (주차 1대가능) (전세 6천 월 5만) (전용 9평, 분양평수 13평)	첨단 8층 상가빌딩 매매 북구 오룡동 (첨단삼성전차 정문 앞) 메가박스, 정부합동청사 1분 (본사건물, 연구실, 기숙사, 물류센터 적합 / 고속도로 진입 5분) 토지 500평, 건물 904평 층수 : 총 8층 구분 : 1층(상가 - 120평) (2층 ~ 8층 룸 58개) ★ 감정가 55억 매 가 38억 (※대출 27억 / 보 6억, 월 3,000만)	전남 영광 전원 매매 영광읍 신월리 → 광주에서 40분!! ① 토 151평, 건 43평 ② 영광 터미널 5분(농가주택 최적함!!) ▶ 매가 8천500만 근린상가 (오피스텔) 소액 투자 □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6층 (45평) 을수리 천변로 전방 좋은 보증금 1,000만, 월세 60만 (용 5천) ▶매가 1억 4천만 □ 서구 쌍촌동 원룸 (오피스텔형) 2층(11평) 운전역 1분출구에서 3분거리 보증금 200만 월 30만 (용 1천) ▶매가 3천 5백만 (전세값으로 내걸마면) □ 상무지구 수립 오피스텔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세 45만 (용 1천6백만) ▶매가 8천 500만 □ 상무지구 수립 오피스텔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보증금 500만, 월 42만 (용 2천4백만) ▶매가 7천 500만 □ 전남 광양 광영동 상아 아파트 (15평) 12층 -전방 좋은, 주변 골짜기, 아파트 밀집지역, 보증금 200만, 월 25만원전세 2천5백만 가능) ▶매가 3천 5백만 □ 서울 용산 청라 도시형 지하 (13평) 숙영역대 1분 보증금 600만 월 60만 ▶매가 1억6천 (용 5천)	법률 경매 (주) 대신경매 경매 추천 물건 □ 전남 영암군 시종면 (3층 상가주택) 토 209평 건 304평 1층 (식당) 2층~3층 (원룸 8개) 4차선 도로 접 (임대각정 없음) 임대각정 없음 / 건물 상태 양호 ▶감정가 8억8천 → 최저가 3억2천 □ 북구 중흥동 (숙박시설) 토 91평 건 340평 평주역 1분 (코너자리) 총 룸 30개 (달방수리 1천만 예상) ▶감정가 9억5천 → 최저가 6억6천 □ 동구 수기동 (2층 상가건물) 토 50평, 건 60평 금남로 4가, 5가 역 2분거리 4차선도로접 / 2층 상가건물 ▶감정가 3억 → 최저가 3억 □ 장성군 북하면 (2층 식당) 토 280평 건 253평 식당 최고의 자리 / 백양사 관광지 위치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남구 월산동 (2층 상가) 토 33평 건 146평 12층 중 2층 6차선 도로 접 / 넓은 평수 / 광고 최고 ▶감정가 8억9천 → 최저가 4억
---	--	--	---

010-7384-7800

010-6670-9800